

베트남 2021: 새 임기 지도부 출범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남긴 과제*

백 용 훈**

국문초록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베트남은 2021년 초에 새 임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낙관적 기대로 시작했다. 하지만 4월 말에 북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남부로 확산되었고 대도시와 인근 공단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3분기 성장률이 대폭 하락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봉쇄 조치로 인해 시민들은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했고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이 드러났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무료 예방접종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후 10월 초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기”(sống chung với Covid)를 시작하면서 4분기 경제는 회복되었고 2022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새 임기의 당 지도부는 반부패 및 반부정 운동을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체제를 공고화하고 대중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제어: 베트남, 2021년, 4차 유행, 13차 당대회, 선거, 반부정, 다자협력

* 이 연구는 2021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조교수, beakyh@hanmail.net

I. 머리말: 낙관론의 함정

베트남의 2021년은 낙관적 기대와 함께 시작됐다. 2020년에 국가 지도부의 대내외 리더십과 전국민의 단결을 통해 세 차례의 유행을 단기간에 통제하면서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분위기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에 배태되어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게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연초에 정부가 제시한 2021년 사회경제발전계획의 실현에 관한 결의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결의 1호(01/NQ-CP, 2021/1/1)에 제시된 주요 목표치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6.0~6.5%, 1인당 GDP는 3,700 달러다(VGP 2021a). 세계은행은 6.8% 성장을 전망했고 다른 주요 금융기관들 역시 6.0% 이상의 고성장을 예상했다(VNA 2020).

하지만 4월 말에 해외로부터 변이체가 유입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되어 견잡을 수 없는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 방역 모범국의 위상을 단번에 상실했고 봉쇄와 격리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2020년에 세 차례의 유행에서 발생한 누적확진자 수는 1,500명 미만에 불과했지만 2022년 1월 중순 기준 약 200만 명에 달하며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¹⁾ 북부 하노이 인근 공단 지역에서 시작된 감염은 남부에 위치한 대도시 호찌민시와 인근 공단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확진자 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4차 유행의 확산은 지난 1-3차의 방역 성공으로 인한 낙관론의 함정 때문이었다.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의무 격리 이후 자가 격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바이러스가 발생하더라도 억제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이 다소 느슨해졌다 (VOV 2021).

1) 베트남 보건부 코로나19 대유행에 관한 사이트 <https://covid19.gov.vn/>(검색일: 2022. 01.18.).

이와 함께 2021년에 있었던 주요 정치적 사건들이 상황적 변수로 작용했다. 2021년 초에 열린 제13차 전국공산당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서 공산당총비서를 제외한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졌고 5월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인민위원 선거 역시 치러졌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방역의 책임을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새로운 임기의 지도부는 정치적 안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에 주력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과 경제 발전”이라는 이중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물론 이러한 지침은 지난 1-3차 유행 시기의 방역 성과 덕분에 내릴 수 있는 정책 결정이었다.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과 블로거(bloggers)와 반체제 운동가들에 대한 지속된 억압으로 인하여 공산당의 정당성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교차했다면(Schuler 2021: 90-91), 2021년에는 경제 목표 달성 여부가 공산당과 새 임기를 시작하는 지도부의 역량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였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었고 백신 수급 및 확보가 상대적으로 늦었으며 자국 내 백신 개발 속도 역시 지체되는 상황에서 지난 방역 성공으로 인해 자신감과 낙관적 기대감만 컸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대응 실패는 곧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졌고 사회적 보호의 한계 상황에 치닫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었다.

베트남은 미중 경쟁의 구도 속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거점으로 부상하여 역내에서 대외 관계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안고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조원득·이상숙 2020: 31). 베트남은 그동안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기업들의 탈(脫) 중국 현상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세계경제체제로의 통합을 위한 각종 자유무역협정 가입으로 인해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8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추진 이후

미국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야심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베트남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정혜영 2021).

이 글의 주요 목적은 2021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정치, 경제-사회, 대외관계의 주요 사안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며 흐름을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의 정치 부분에서는 제13차 당대회와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 결과를 정리하고 베트남의 선거의 의미를 살펴봄에 새 임기(2016-2021) 지도부의 구성과 정치 지형을 파악해본다. 3장 경제-사회 부분에서는 2021년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제시하면서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기록한 일정한 성과와 함께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경제 및 사회 부문을 진단한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함께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베트남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새 임기 지도부가 당면한 과제를 짚어본다. 4장 대외관계 부분에서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베트남이 처한 위치를 살펴보고 대응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2022년은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국의 협력 분야와 관계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정치, 경제, 그리고 대외관계에 관한 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2022년 베트남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한다.

II. 정치

1. 새 임기 지도부 출범과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 “안정적”인 국정 운영 전망

2021년 베트남 정치에서 중요한 점은 향후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부 선출과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이다. 2021년의 시작과 함께 가장 관심을 끈 이슈는 “단결-민주-기강-창조-발전(Đoàn kết-Dân chủ-Kỷ cương-Sáng tạo-Phát triển)”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13차 당대회였다. 5년마다 한 번 개최되는 당대회의 주요 안건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공산당의 주요 인사 선출, 이전 전당대회 결의안의 이행 평가, 이전 임기의 사회경제발전전략 평가, 그리고 새 임기의 발전 목표 설정 등이다.

당대회 기간 동안 지난 10년 간 사회경제발전전략의 평가 보고와 향후 5년 계획 및 10년 전략의 발표 및 승인이 이루어졌다. 번영하고 행복한 나라 건설, 민족적 단결의 의지와 힘 증진, 그리고 도이머이(Doi Moi), 산업화, 현대화 등을 강조하였다. 2011-2020 시기 동안 가공품 및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등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과학기술 수준과 GDP 성장률 정체 등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지향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와 전략이 제시되었다. 2025년까지 중저소득 이상의 개발도상국으로, 2030년까지 상위 중소득 이상의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2045년까지 1인당 GDP 1만 2천 달러의 고소득 선진국으로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별적 FDI 유치와 국영 기업의 민영화, 고급인력 양성, 교통·에너지·IT 인프라 우선 구축 등을 전략적 동력으로 발표했다(VGP 2021b).

당대회에서 내정되고 선출되는 주요 인사는 중앙집행위원, 정치국원, 서기국원, 그리고 4명의 핵심 지도자(공산당총비서, 국가주석, 수상(총리), 국회주석(국회의장))다.²⁾ 응우옌쑤언푹주석은 역사상 수

2) 13차 당대회의 결과, 특히 최고지도부 및 정치국 위원들의 구성은 백용훈(2021: 53-56)의 글에서 이미 상세히 정리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였고 아래에서는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상에서 국가주석이 된 최초의 사례다. 3연임에 성공한 응우옌푸쑹(Nguyen Phu Trong) 공산당총비서와 전 수상에서 국가주석의 지위에 오른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이 최고지도부 인사로 연임되었기 때문에 기존 지도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반부패운동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경제의 질적 개선에 방점을 두고 성과를 이루기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지도부 중 가장 파격적으로 선출된 인물은 팜민찐(Pham Minh Chinh) 수상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구조 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팜민찐은 응우옌푸쑹과 함께 중국과 가까운 지도자로 분류되며 응우옌푸쑹의 뒤를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 3성 장군이자 전 공안부 차관인 팜민찐(Pham Minh Chinh)과 전 공안부 장관인 또람(To Lam)의 두 번째 연임을 통해 공안이 국가 기구 내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중앙집행위원 200명 가운데 120명은 연임되었고 80명은 신규로 선출되었다. 신규 선출 위원 가운데 40대의 비율이 50%를 넘어 젊은 층이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당대회에서 내정된 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국가주석과 수상은 4월 열린 국회 선출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임되었고 4명의 부수상이 임명되었다. 부수상은 기존 5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팜빈민(Pham Binh Minh)과 부득담(Vu Duc Dam)은 연임되었고 레밍카이(Le Minh Khai)와 레반타인(Le Van Thanh) 부수상이 새롭게 지위에 올랐다. 경제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서 동시에 부수상의 경험이 없이 수상에 임명된 팜민찐 수상(Pham Minh Chinh)과 달리 향후 5년간 내각을 이끌어갈 22개 부처 장관의 경우 재무부, 산업무역부, 교육훈련부를 제외하면 유임되거나 차관이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11개 부처 및 부

처급 기관(공안부, 법무부, 기획투자부, 교통부, 자원환경부, 정보통신부, 노동보훈사회부, 과학기술부, 베트남은행, 소수민족위원회 위원장, 감찰원장)의 장관이 유임되었고, 8개 부처(국방부, 외교부, 내무부, 농업농촌부, 건설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부, 총리실) 장관은 차관에서 승진하는 인사가 이루어졌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사이트, 검색일: 2022.01.10.). 따라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전망된다.

한편, 5월에는 15대 국회(the 15th National Assembly)의원 선거와 지방인민위원회(the People's Councils at the local level) 선거가 치러졌다. 전국 유권자 중 99.6%에 해당하는 약 7천 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으면서 역대 최대 규모와 득표율을 기록했다. 500명의 의석 중에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빈중성(Binh Duong Province) 후보 1명을 제외한 499명이 당선됐다. 당선자의 당적 구성을 살펴보면 공산당 당원이 97.2%인 485명, 당원이 아닌 비율이 2.8%인 14명이다. 재선의원은 203명, 초선의원은 296명이다. 연령별로는 40대 미만 47명, 40대 209명, 50대 211명, 60대 31명, 70대 1명으로 40대 이하가 51.3%, 40-50대가 8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인민위원회 대의원의 경우 성급(Provincial level) 인민회의 대의원 3,721명, 현급(District Level) 인민회의 대의원 22,550명, 사급(Commune level) 인민회의 대의원 239,788명이 선출되었다(Vietnam+ 2021; 김태연 2021).

15대 국회 결과 중 주목할 점은 여성과 소수민족 의원의 비중이다. 당선된 499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30.26%인 151명이고 소수민족 대표는 17.84%인 89명이다(Viet Nam Women's Union 2021). 여성의원의 비중이 30%를 상회한 것은 5대 국회(32.31%) 이후 두 번째이며, 소수민족 대표의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Tien Long 2021). 12대 국회의원 중 소수민족 출신은 17.7%였고, 13대와 14

대에서는 각각 15.6%와 17.3%였다. 베트남에는 국가 전체 인구의 약 14.7%를 차지하는 53개 소수민족이 존재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르(Lự)와 브라우(Brau) 등과 같은 극소수인 소수민족 대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Ngoc 2021). 이후 15대 국회 2차 회기에서 국회의원들은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소수민족 거주지역과 산간지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경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VNA 2021).

2. 2021년 베트남 선거의 “정치·문화적” 의미

2021년에 주목할 정치적 사건 중 하나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일당 국가에서 투표의 정치적 중요성은 다당제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는 미미할 수 있지만 이번 당대회와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는 베트남의 정치 지형과 경제 성장의 과도기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정치적 의미가 존재한다.

첫째, 정치적 보수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당대회 이전에 쩡 총비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을 후보로 지명했지만 당에서는 그를 거부했다. 쩡 총비서는 당내 경쟁 세력이 지위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결국 연임을 결정했다. 쩡 총비서의 3연임의 과정은 베트남 정치체제의 특징에 해당하는 당내 파벌 간의 권력 구도가 존재한다는 점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하에 주요 인사가 결정된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쩡 총비서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반부패운동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지지자들에 대한 통제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 보수화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다.

둘째, 쩡 총비서가 3연임에 성공한 것이 과연 베트남 공산당의 미

래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다. 일각에서는 총비서의 3연임으로 인해 중국과 같은 후견적인 파벌의 형태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당대회에서 선출된 주요 인사와 이후 치러진 선거 결과에서 주목한 것처럼 젊은 층이 정치 지형 내에 진입하고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개혁의 세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정치체제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과 달리 파벌, 특히 보수파와 개혁파라는 비유가 정책 입장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중국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은 응우옌푸쑹(Nguyen Phu Trong) 총비서보다 개인주의적인 통치 방식을 추구한다(Malesky 2021: 165-167). 중국과 베트남 모두 일당 시스템 하에 당내 엘리트 행위자들의 연합이 강조되지만 중국에서는 이러한 체제가 고정적이고 후견적인 파벌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베트남은 보다 유연하고 단기 이념과 정책 목표에 중점을 둔다(Trinh 2020). 베트남은 다원적이고 경쟁적인 정치 체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된 문제에 대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Wang and Liu 2020). 따라서 당내 기강을 강화하면서 공산당의 단결과 결속이 강화되고 젊은 층의 개혁 의지가 중도보수적 색채로 유연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끝으로, 예외 규정을 두어 특별승인의 형태로 연임을 하는 지도부의 정당성 확보의 문제다. 쑹 총비서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당을 건설하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공고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제도적 틀을 깨고 법과 규정을 수정한 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 등의 성과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을 둔 것은 인사 문제에서만 아니었다. 헌법 제97조에 따르면 정부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를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

고 국회 조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새 국회의 첫 회기에 선거를 실시하여 새 정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2021년 5월에 제15대 국회가 선출됨에 따라 새 정부의 선출은 6-7월 첫 번째 회기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 선출은 이미 4월에 앞당겨 이루어졌다. 당은 국가 기관을 공고화하고 사회경제발전 계획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지만 이를 위한 정당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새 정부 구성이 새 국회 회기에 앞서 이루어진 것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16년 당시 쑹 총비서와 지지자들은 당대회와 새 정부 인사 선출의 기간을 단축시켜 당내 반대파들을 주요 정부 직위에서 해임할 계획을 세웠었다. 이전에는 당대회 이후 새 국회에서 정부를 선출했고 큰 문제없이 사회경제적 발전계획을 이행해왔다. 베트남 공산당은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를 해나가는 실용주의 노선을 노련하게 취하는 재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 이익을 위한 임시적 수정과 방편, 특히 예외 규정이 법과 규정에 기초한 조치보다 우선시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당의 명성과 거버넌스 능력은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에 의해 더 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Le Hong Hiep 2021).

양적연구방법을 통한 실증적 검증을 지향하는 말레스키(Malesky)가 베트남 국가를 처방하는 의견과 질적연구방법과 정책 담론 분석에 초점을 두는 포르드(Fforde)의 주장이 서로 다르듯이(Gainsborough 2018), 이번 13차 당대회와 이어진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수 있다. 서구적 맥락에서 파생된 개념을 통해 베트남의 선거를 분석하면 권위주의 하에서의 선거 동원과 전략이라는 제한된 기능주의적 논리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다. 선거를 위한 화려한 홍보 캠페인이 없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일 직전 주간으로 제한되는데,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위해 투표할 수 있는 대리 투표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투표를 통한 위임이라는 인식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지방 당국은 높은 투표율을 통한 관행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선거에 관한 일반화된 틀과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베트남의 미시적인 사회 수준의 역학과 그 상징적 의미를 탐색해볼 수 있겠다.

투표를 통해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국가에 참여하고 시민이 된다. 이러한 상징성으로 인해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멈추지 않는 하나의 활동이 바로 선거다. 베트남 선거는 큰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화려한 광고 캠페인도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 역시 선거일 직전 주간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선거는 곧 축제다. 베트남 언론은 선거의 광경을 ‘큰 모임의 날(ngày hội lớn)’이라고 표현한다(Hoang Vu 2021). 호이(hội)는 한자로 회(會)이며, 베트남어로 연합, 모임, 모이는 활동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일부 언론의 경우 의식, 의례, 향연 등을 뜻하는 레(lễ, 禮)와 합하여 선거일을 일종의 문화 활동을 가리키는 축제(lễ hội, 禮會)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흥사원축제(Lễ hội Đền Hùng)를 떠오르게 한다. 투표를 호이라고 표현하는 상징성은 장소에서도 나타난다. 학교와 공공 건물 이외에 투표소는 역사적 명소, 불교 사원, 그리고 딘(đình)이라 불리는 마을의 공동 사원에서 설치된다(To Minh Son 2021). 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이러한 상징성은 모든 사람이 해당 문화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투표 행위 자체가 유권자들의 기도나 소원으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

3.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반부패 운동과 당의 건설 및 정비 지속

공산당총비서와 국가주석을 겸직 중이던 응우옌푸쑹은 13차 당대

회 결의에 따라 국가주석 직을 응우옌쑤언푹에게 이양했다. 이에 따라 쑹 총비서는 당 내부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반부패와 당의 건설 및 정비를 지속해 나가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차 당대회 폐막 후 쑹 총비서는 “지금까지의 반부패 운동은 ‘초기 방지 및 예방’ 전략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앞으로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Nguyen Hai Hong 2021b: 394).

쑹 총비서의 연임과 함께 2020년에 징계를 받은 3대 정치 거물, 즉 호앙쑹하이(Hoang Trung Hai) 전 하노이시당비서, 레타인하이(Le Thanh Hai) 전 호찌민시당비서, 응우옌반빈(Nguyen Van Binh) 전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의 정치적 운명을 어떻게 결정할지의 행보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13차 당대회에 앞서 호앙쑹하이와 응우옌반빈은 경고를 받아 새 정치국 위원으로 재선되지 않았고 레타인하이는 해임되었다. 호앙쑹하이가 부수상으로 재직하는 동안 타이응우옌철강회사와 중국의 금속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는 수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했다. 응우옌반빈은 베트남 중앙은행의 대표로 정부 규정에 반하는 불법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국가 세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만들었다. 호앙쑹하이와 응우옌반빈은 모두 응우옌푸쑹 총비서와 경쟁 관계였던 응우옌뎐중(Nguyen Tan Dung) 전 수상이 이끄는 내각의 일원이었다. 호찌민시의 대부리는 별칭이 있는 레타인하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2021년 4월에는 호앙쑹하이의 가장 가까운 동맹자인 텃타인깡(Tat Thanh Cang)을 당에서 추방했다. 세 거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암시한다(Nguyen Hai Hong 2021a).

2021년 상반기 동안 70개 이상의 당 조직과 8,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180명은 부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요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굵직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다낭-꽝응아이(Da Nang-Quang Ngai) 고속도로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의 공적 자금 횡령, 떤투언 IPC(Tan Thuan Industrial Promotion Company)와 남부 사이공개발회사(the South Saigon Development Corporation, Sadeco)의 국유 자산 횡령 및 부실 관리, 떤투언 투자건설회사의 국유 자산 부실 관리, 판반아인부(Phan Van Anh Vu) 관련 뇌물 사건, 그리고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 관리국, VN Pharma 회사 및 관련 기관의 문서 위조 등이다(Hai Yen 2021).

반부패운동은 2021년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반부패중앙 운영위원회 19차와 20차 회의가 각각 1월과 8월에 개최되었는데, 쯡 총비서는 20차 회의에서 반부패중앙운영위원회의 명칭을 “반부패 및 반부정 중앙운영위원회”(the Central Steering Committee for Anti-corruption and Anti-negativity)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9월에 기존의 반부패 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 등에 관한 문서(211-QĐ/TW, 2019/12/25)를 대체하는 반부패 및 반부정 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 등에 관한 문서(32-QĐ/TW, 2021/9/16)를 공포했다(Dinh Van Minh 2021). 부패 사건을 처벌하는 문제에서 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부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쯡 총비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며 향후 징계와 처벌은 보다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새 공산당 지도부 선출 이후 당 건설과 시정에 관한 5대 주요 문서의 공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찌민 사상, 도덕, 양식을 학습하고 따르는 것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12차 정치국 지시(05-CT/TW)의 지속적인 시행에 관한 정치국의 결론(01-KL/ TW, 2021/5/18), 당과 정치체제의 건설과 정비 강화, 정치사상, 도덕성, 생활양식, “자기진화(tự diễn biến)”, “자기변혁(tự chuyển hoá)” 표현에 관한 타락한 간부와 당원들을 단호히 방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에 관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론(21-KL/TW,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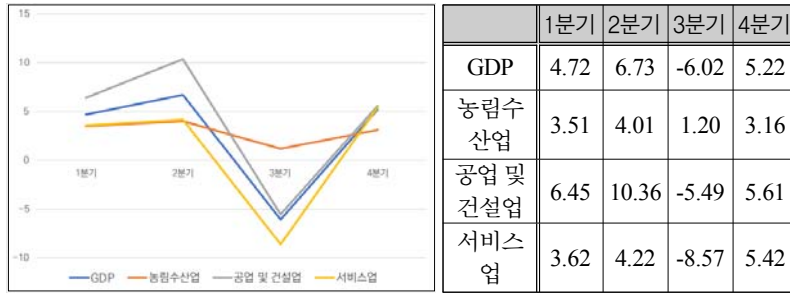
10/25), 당원이 할 수 없는 일들에 관한 규정(37-QĐ/TW, 2021/10/25)이 공포됐다. 이상의 세 문서에는 범위, 목표, 해결 방법의 측면에서 많은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간부를 격려하고 보호하는 정책”에 관한 정치국의 결론(14-KL/TW, 2021/9/22), 간부의 해임에 관한 규정(41-QĐ/TW, 2021/11/3)이 공포되었는데, 이 두 문서는 처음 발행된 것이다 (Vietnam+ 2021).

Ⅲ. 경제-사회

1. 4차 유행으로 인한 경제 부문 타격과 “회복력”

2021년 베트남의 GDP 증가율은 2.58%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4.72%와 6.73% 성장으로 목표치인 6.5%를 향한 낙관적 기대와 함께 상반기를 마감했다. 하지만, 4월 말부터 시작된 4차 유행의 여파가 지속되고 6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한 봉쇄로 인한 결과는 3분기 -6.02% 성장률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사상 최대의 분기별 하락을 기록했다. 백신 접종률의 빠른 증가와 함께 10월 초부터는 “코로나와 함께”(sống chung với Covid)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4분기에는 5.22%로 회복되었지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4분기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GSO 2021a). 분기별 GDP 증가율은 아래 <그림 1>에 정리하였다.

<그림 1> 2021년 분기별 GDP 증가율 (단위: %)



출처: GSO(2021a)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산업 부문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이 전년대비 2.90% 증가, 공업 및 건설업이 4.05% 증가, 서비스업이 1.22% 증가했고 국내총생산(이하 GDP) 성장 기여도(실질)는 각각 13.97%, 63.80%, 22.23%다(GSO 2021b). 농업의 경우 쌀 수확량과 생산량이 각각 3.1%와 2.6% 증가한 반면에 옥수수, 고구마, 땅콩, 콩은 각각 4.2%, 10.2%, 2.6%,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의 경우 광산 부문 6.21% 감소, 가공 및 제조 부문 6.37% 증가, 전기 생산 및 배분 부문이 5.24% 증가, 물 공급, 폐기물 및 폐수 관리 및 처리 부문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업 제품의 전년대비 증감 속도를 살펴보면, 압연 강철이 33.5% 증가, 전화 부품이 29.5% 증가, 자동차가 9.1% 증가, 신발 및 가죽이 8.2% 증가, 가공 해산물이 2.6% 감소, 원유 추출이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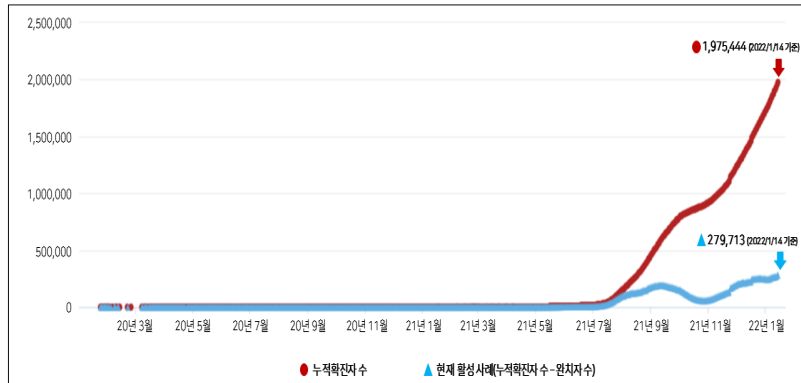
서비스업의 경우 상품 소매업이 0.2%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이 19.3% 감소, 여행업이 59.9% 감소, 기타 서비스업이 16.8% 감소했다. 승객과 물품 운송이 각각 33.0%와 8.7% 감소했고, 해외 여행객의 경우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이 96.4% 감소, 도로를 이용한 여행객이 92.5% 감소, 기차를 이용한 여행객이 99.6% 감소했다. 해외 여행객은 157,269명을 기록했는데, 아시아가 132,835명, 유럽이 16,001

명, 미국이 5,752명, 오세아니아가 1,251명, 아프리카가 1,430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GSO 2021a).

2020년 방역 성공으로 베트남 정부가 기대했던 2021년의 성장률은 6.0~6.5%였다. 이러한 기대와 달리 2021년 베트남 경제의 저조한 실적은 대도시와 인근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지속된 4차 유행의 결과로 이해된다. 4월 말에 하노이 인근 공단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5월 중순부터는 호찌민시와 인근 공단지역으로 확산되었고 6월 말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7월 중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명 이상 기록하기도 했다. 주요 상업 중심지인 호찌민시는 대중 교통, 공공 모임 등 광범위한 활동에 대한 매우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호찌민시를 비롯한 남부지역의 감염이 통제되지 않자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지시 16호를 시행했지만 확진자 수는 증감을 반복했고 결국 지역사회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소비자 지출, 건설 활동, 그리고 제조 생산이 봉쇄 조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생산 자재 가격이 상승되었고 기업 및 서비스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Manufacturing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5월 53.1에서 6월 44.1로 급락했고 7월에는 45.1로 상승했다. 그리고 9월에는 40.2로 더 떨어졌다. 중립적인 비즈니스 조건을 나타내는 50.5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조업 부문의 위축을 나타낸다. 3분기에 공업 및 건설업의 성장률은 -5.49%, 서비스업은 -8.57%를 기록했다(<그림 1> 참조). 장기간의 공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고향이나 지방으로 돌아갔고 이에 따라 산업 단지에서의 노동력이 부족했다.

<그림 2> 누적확진자 수 추이(2020/2/15-2022/1/11) (단위: 명)



출처: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장기간의 봉쇄 조치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고의 백신은 가장 빠른 백신이다(vaccine tốt nhất là vaccine được tiêm sớm nhất)”라는 슬로건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무료 예방접종 캠페인을 조직했다. 2021년 6월 초에 백신 접종률은 1.3%에 불과했고 당시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이었지만, 보건부는 12월 29일 기준 18세 이상 인구의 66%(1회 이상은 83.3%)가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발표했다(Vietnamnet 2021). 대도시와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한 백신 접종과 함께 신규 확진자 수가 9월 말과 10월 초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공장이 재개되었고 PMI는 10월에 52.1로 급격히 반등했다(GSO 2021a).

2021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하여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³⁾ 휘발유, 가스, 쌀, 주택 자재, 교육비가 전년대비 인상됐고 식품, 돼지고기, 닭고기, 전기요금, 항공료, 가격이 하락했다. 3분기 실업률은 3.98%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3) 2016년 2.66%, 2017년 3.53%, 2018년 3.54%, 2019년 2.79%, 2020년 3.23%, 2021년 1.84%(VGP 2021d)

했다. 주식 시장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디지털 화폐는 새로운 투자 채널로 주목을 받았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도 주식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새로운 자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신규투자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전년대비 3배 증가하며 시장에서 철수하는 양상을 보였다(VnExpress 2021).

호찌민시 토지 가격 역시 최고를 경신했다. 대표적으로 호찌민시의 투티엠(Thu Thiem) 지역의 토지 네 곳에 대한 경매 낙찰 가격은 평방미터당 24억 동(VND, 10만 5천 달러)인데, 이는 경매 시작 가격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중앙직속시에 해당하는 호찌민시는 행정 단위에 포함되어 있던 2군, 9군, 그리고 투득(Thu Duc)군을 통합시켜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투득시를 설립(2021년 1월 시행)하였는데, 투티엠은 대형 아파트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예정으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Huu Cong 2020). 다른 지역의 토지사용권 경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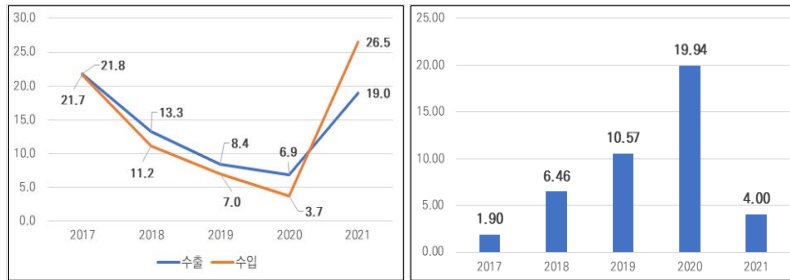
2. 교역과 투자의 증가, 하지만 “불확실한 산업의 고도화”

2007년 WTO 가입 승인 이후 약 15년이 된 베트남은 200개 이상의 국가와 무역 관계를 수립하였고 총 수출입 금액은 6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상품 수출입의 경우 전년대비 22.6% 증가한 6,6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19% 증가한 3,362.5억 달러를, 수입은 26.5% 증가한 3,32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40억 달러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이 중 12월 무역 흑자가 25억 4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베트남은 2016년 이후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며 2020년

까지 해마다 그 기록을 경신해왔다.

<그림 3> 수출입 증가율(좌)과 무역수지 흑자(우) (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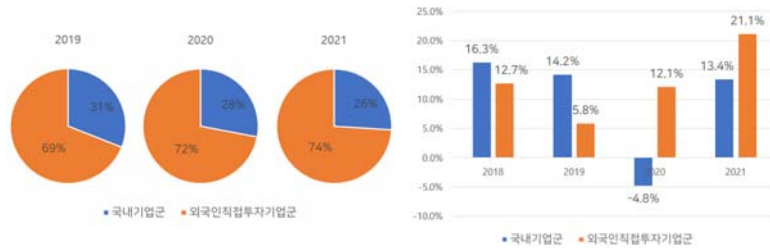
(단위: %(좌), 10억 달러(우))



출처: GSO(2021a)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국내기업군은 253.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은 293.6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기업군의 상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13.4% 증가한 887.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총 수출액의 26.4%를 차지한다. 외국인투자기업군의 상품 수출액은 21.1% 증가한 2,475.4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73.6%를 차지한다. 최근 지표를 살펴보면, 기업군별 수출액 비중은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볼 때 외국인투자기업군의 수출액 비중이 상승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점은 기업군별 수출액 증가율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에 비해 국내기업군의 수출액 증가율이 높았지만 2020년과 2021년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민간 기업의 제조업과 첨단 기술 분야로의 진출을 통한 국내 산업 기반 강화, 그리고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가치사슬에 참여하도록 지원했지만 코로나 이후 국내기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림 4> 기업군별 수출액 비중(2019-2021)과 증가율(2018-2021)



출처: GSO(2021a)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가공 공업 제품군의 수출액은 2,99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전체 수출품 가운데 89.2%를 차지했다. 휴대전화 및 부품과 전자, 컴퓨터 및 부품이 각각 575억 달러와 510억 달러, 기계설비 및 부품이 383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산물과 임산물은 237억 6천만 달러로 7.1%를, 수산물은 88억 9천만 달러로 2.6%를, 연료 및 광물은 37억 5천만 달러로 1.1%를 차지했다(VTV 2021). 수입의 경우 중간재 혹은 원자재가 3,106억 6천만 달러로 93.5%를 차지하고 소비재가 215억 9천만 달러로 6.5%를 차지했다. 전자, 컴퓨터, 및 부품이 759억 달러, 기계설비 및 부품이 462억 달러, 휴대전화 및 부품이 216억 달러를 기록했다(GS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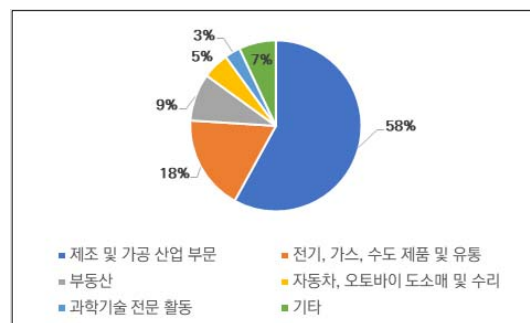
상품 수출입 금액을 기준으로 본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 24.8%, 미국 16.6%, 한국 11.7%, 아세안 10.5%, EU 8.5%, 일본 6.4% 순이다. 미국은 약 956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최대 수출 시장이며 중국은 약 1,099억 달러 규모의 가장 큰 수입 시장이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22.2% 증가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32.0% 증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은 EU와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여 수출 성장을 촉진하였다. EU에 대한 무역 흑자가 처음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한 230억 달러에 도달했다. 그러나 수출용 수입이 많아 중국, 한국, 아세안, 일본 등과 같은 주요 시장의 무역 적자

가 증가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다. 베트남 정부는 FDI 유입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제조와 수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주도형 FDI 성장모델을 추진해왔다(이한우·채수홍 2019: 178).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제한되었고 베트남을 경유하는 수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베트남 투자가 증가했다(백용훈 2021: 40 재인용).

2021년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등록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본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311억 5천만 달러다. 이 중 58%인 181억 달러 이상이 가공 및 제조업 부문에 유입되었다. 전력 생산 및 배전 산업은 18%인 57억 달러 규모로 2위를 차지했고 부동산은 9%인 26억 달러, 도소매업은 5%인 14억 달러 순이다. 신규 프로젝트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152억 달러다. 제조 및 가공 산업, 도소매 및 전문 활동, 과학기술 분야가 각각 30.7%, 28.1%,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2021년 집행된 FDI의 분야별 비중



출처: GSO(2021a)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2021년에는 106개의 국가(지역)가 베트남에 투자했는데,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총투자자본 중 34.4%인 107억 달러를 투자한 싱가포르

포르다. 싱가포르는 남부 룡안(Long An)의 LNG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베트남 자동차 기업 빈패스트(VinFast)에 대한 주식 매수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것이었다. 한국은 15.9%인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일본은 12.5%인 39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국은 자본금 기준으로 2위이지만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선두다. 즉, 2021년에 투자 프로젝트를 확대하거나 신규 투자를 결정한 한국 투자자들이 많았다. 지방별로 살펴보면, 하이퐁(Hai Phong)이 총투자자본의 16.9%인 52억 6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룡안은 12.3%인 38억 4천만 달러로 2위를, 호찌민시는 12%인 37억 4천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Minh Ngoc 2021).

베트남은 현재 한국, 아세안, EU, 미국 등 17개 파트너 국가들과 FTA 협상을 체결 및 이행 중이다. 2016년 이후 베트남-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VN-EAEU-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EVFTA),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이 발효되었고, 베트남-영국 자유무역협정(UKV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서명 후 발효를 앞두고 있어 세계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베트남은 해외 투자 기업들에 유리한 수출 전략지가 될 수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한 교역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VFTA는 베트남의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촉진할 핵심적인 자유무역협정이다. 2020년 8월 1일 EVFTA가 발효되었고 향후 7년 동안 양국 간 관세는 99%가 철폐되어 미국에 집중된 수출이 보다 다양화될 것이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EU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했고, 베트남-EU 투자보호협정이 발효될 경우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괄적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15개 RCEP 국가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완화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공급망 다양화 등 세계경제의 압력이 존재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0년에 베트남을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지만 2021년에는 1988년 옴니버스 무역 및 경쟁법을 참조하여 지정하지 않았다. 이는 베트남이 동가치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미국과 협정한 후 해결되었다.

2008년 이후 베트남이 외부 세계와 더욱 통합됨에 따라 공산당은 베트남의 성장 모델을 재정의해야 하는 압력을 받았다. 천연자원과 노동집약적 산업 개발에 의존하는 대신 경쟁력있고 혁신적인 경제 성장 모델을 채택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을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당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2011년 11차 당대회 이후 민간 부문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경제 부문 간의 경쟁과 평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Pham Duy Nghia 2016: 272-273).

2014년에 베트남 수상은 “2025년까지 베트남 공업 부문 발전 전략 및 2035년을 향한 비전” (No. 879/QD-TTg)을 발표한 바 있다. 베트남은 산업의 고도화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하여 세계 시장에서 가공 및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데 집중하도록 강조했다. 그리고 2018년 베트남 수상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전자제품, 농수산 가공 등의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베트남 상품이 베트남 사람들을 정복한다”(Hang Viet Nam Chinh Phuc Nguoi Viet Nam)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바 있다.

2019년에는 “Make in Vietnam” 캠페인을 통해 2030년까지 IT 분야 세계 3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베트남인의 첨단 제품 제작 및 디자인에 대한 주도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시한 표현이다. 단순한 조립, 가공에 대한 원산지, 현

지화율, 관세, 수출입 등과 연관되어 있는 “Made in Vietnam”에서 창작, 디자인으로 강력한 전환을 이루어 베트남 디지털 제품을 탄생시키는 전략을 통해 베트남은 성장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더 깊이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민간 대기업 빈그룹(Vin Group)이 2017년에 설립한 자동차 제조 기업 빈패스트(VinFast)는 이상과 같은 베트남 정부의 산업 정책 및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주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빈그룹에 대한 국가 소유는 없다. 빈패스트는 지식과 기술 집약적인 제품의 혁신을 촉진하고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민간 자본이 국유 기업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공급망 연결을 촉진할 RCEP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빈패스트는 2021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전기자동차(EV) 모델 VF e35와 e36을 선보였으며 미국에 제조 공장을 세우고 뉴욕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출시하여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위상을 다지기를 희망한다(Small 2021).

베트남은 전략적 위치, 경쟁력 있는 노동 비용과 함께 충분한 인력, FDI를 위한 비교적 개방된 환경 등의 이유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LG 등 외국인투자자들은 하이퐁에서 제조를 확장하고 있고 레고(Lego) 그룹 역시 빈즈영(Binh Duong)에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Do Truong 2021). 하지만, 베트남 공업 부문은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 조립 중심이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산업과 경쟁력이 높은 국내 산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을 위한 원자재와 부품 공급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의존하고 있고 이 때문에 현지화율이 낮다. 앞서 국내기업군과 외국인투자기업군의 수출액 규모와 증가율에서 살펴 보았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국 산업의 고도화는 더욱 지체되고

있다. 베트남 경제의 중장기 성장 목표 달성 여부는 자국 민간 기업과 외국인투자부문 간의 연계와 그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백신 공급에 못 미친 지방 간 협력의 부재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베트남은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백신 공급을 확보했다. 2021년 8월에 베트남은 외교부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실무 그룹을 설립하여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생산 기술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강구했다. 베트남 지도부는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회담을 통해 백신 공급 확보를 위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덕분에 베트남에서 백신 재고량은 12월 초에 약 1억 5천만 도즈에 도달했고 이는 인구의 75%에게 보급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또한 글로벌공급망에서 베트남이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됨에 따라 해외 기업들은 장기 간의 공장 폐쇄에 따른 베트남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었다. 2021년 7월 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는 유럽연합 대사들에게 베트남으로 더 많은 백신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9월 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백신 기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 이전에 나이키, 아디다스, GAP 등 미국 기업 CEO 90명 역시 유사한 요청을 한 바 있다. 미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백신 공여국으로 2천만 회 이상을 제공한 바 있다(Le Hong Hiep and Phan Xuan Dung 2021).

온라인 여론을 살펴보면 백신 공급과 출시는 대중이 당과 국가에 대한 비판보다 동정을 표시한 유일한 분야다. 특히,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백신 출시에 대한 정부의 새해 메시지는 300만 팔로워(follower)와 함께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의 페이스북 포스트는 코로나19 백신 조달을 위한 기금 모금을 시작한 후 국제 사회

로부터의 지원과 생산 기술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백신 접종운동의 성공은 베트남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억제하고 경제를 재개하며 뉴노멀의 시대로 통합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1,100개 이상의 댓글 중에서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정부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너무 자랑스러운 베트남’, ‘공산당 국가와 정부에 감사하다’, ‘훌륭한 베트남 외교’ 등이다(Le Hong Hiep and Phan Xuan Dung 2021).

베트남은 2021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에서 동티모르 다음으로 가장 낮은 예방 접종률을 기록한 국가였지만 2022년 1월 초 기준 베트남 성인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약 8,700만 명이 최소 1회 접종을 받았고, 약 73%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12-1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2022년 1분기 말까지 성인 대상 추가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당과 국가 지도부는 2020년에 어렵게 얻는 대중의 신뢰가 무너질 위기를 백신 공급 확대와 자국 백신 출시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안정을 통해 해결해나가고자 했다.

백신 공급 그리고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마라(*quyết tâm không để Ai bị bỏ lại phía sau*)” 구호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사회 정책이 국회, 정부, 부처, 부문,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공포 및 시행되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정부 결의(68/NQ-CP, 7월), 86/NQ-CP, 8월), 126/NQ-CP, 10월))에 따라 2,880만 명의 인구와 337,900명의 고용주/기업 가구에 대해 중앙예산에서 지원한 총액은 31조 4천억 동(약 14억 달러)이다. 또한 정부 결의(116/NQ-CP, 9월)에 따라 실업보험 기금을 이용하여 2,230만 명과 363,600명의 고용주/기업 가구에 37조 5천억 동(약 17억 달러)을 지원했다. 149,100톤의 쌀이 250만 가구에 지원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국민

들의 분노를 가장 많이 불러일으켰다. 2021년 전체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높았다. 취업자 중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 역시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경제활동참가인구의 비율은 67.7%인 4,900만 명으로 전년대비 1.9% 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생산가능인구의 실업률은 3.22%(1분기 2.42%, 2분기 2.62%, 3분기 3.98%, 4분기 3.56%)이며 생산가능인구의 불완전 고용률은 3.1%(1분기 2.2%, 2분기 2.6%, 3분기 4.46%, 4분기 3.37%로 추정)다.

7월에 호찌민시와 빈즈영(Binh Duong)에서 수백만 명의 근로자는 일자리와 현금이 없어 산업중심지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오토바이 혹은 도보로 탈출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는 향후 임기 동안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Dien Nguyen An Luong 2021).

한편, 전국 인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전자칩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목표 달성과 함께 베트남 국민에 대한 최초의 기본정보 제공한다. 이는 전자 정부, 디지털 정부 및 디지털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다. 표준화, 디지털화 및 국가 관리를 위해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인구 관리와 통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제공을 기대한다. 2021년에는 전국문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명칭으로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46년과 1948년에 이어 세 번째다. 공산당이 정치와 경제 분야와 대등하게 문화 분야를 중시한다는 관점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된다. 2021년 11월 23일 유네스코 총회는 2022년에 응우옌딘찌에우(Nguyễn Đình Chiểu)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고 호쭈언호영(Hồ Xuân Hương)의 탄생 200주년과 사망 250주년을 기념하기로 결정했다. 12월 15일에 유네스코(UNESCO)는 쏘에타이(Xòe Thái) 예술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록했다(Vietnam+ 2021).

IV. 대외관계

1. 미국-중국 갈등 구조 속 “다자협력” 강조

동남아시아 지역 내 중소국들은 지정학적 경쟁의 영향과 함께 갈등하는 두 강대국,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균형, 편승, 해징, 중립 등의 외교 전략을 선택해야만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성장을 위한 기회인 동시에 군사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의 압력에 대응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최경준 2020: 31). 베트남은 글로벌생산사슬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역내에서 이러한 과제를 가장 크게 안고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조원득·이상숙 2020: 31). 베트남은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기업들의 탈(脫) 중국 현상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세계경제체제 내에 자리 잡기 위하여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는 정책에 따라 글로벌가치사슬의 거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1년 7월과 8월에 각각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장관과 해리스(Harris) 미국 부통령의 연이은 베트남 방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베트남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미국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1962년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부통령과 1962년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이후, 특히 통일 이후 처음이다.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문이 안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에서는 경제, 보건, 인권에 초점을 두었다. 즉,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안보와 중국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미국 간 더 깊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신뢰를 증진시켜 관계를 다양화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공중 보건 관련 지원 그리고 하노이에 위치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동남아 담당 사무소에 참석했고 남중국해 문제에 관

한 안보 현안과 미국 글로벌 공급망 관련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Bui Thu 2021).

양국 관계는 포괄적 파트너십 하에 9개 협력 분야, 즉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 교육과 훈련, 환경과 건강, 전쟁 유산 문제, 국방과 안보, 인권 문제, 문화·스포츠·관광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은 미국 지향적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와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2021년 3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방향은 베트남을 중시하며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인의 미국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2%에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응답자의 97.2%가 미국과 베트남의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며, 응답자의 93.7%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할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국방-안보는 32%에 불과했다(Pham Cao Cuong 2021).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 기간 동안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베트남의 일부 지도부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미국의 전략이 안보에 치중할 때 중국을 상대하기 위하여 베트남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 빨리 강화할 수 없으며 균형 요소로 중국을 고려해야 한다.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의 대립이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지속되고 있으므로 전략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장기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베트남은 일본과 포괄적인 양자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2014년에는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인도와 중요한 안보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2016년에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베트남은 상황에 맞게 각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자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이 향후 베트남 외교 정책의 더 큰 초점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ASEAN, AIPA, ASEM, APEC, APPF의 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행 중이다. 2020년에 베트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두 번째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23-2027년 임기 동안 유엔 국제법 위원회를 재선출되었고 2021-2025년 임기 동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Vietnam+ 2021). 베트남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고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메탄 30%를 줄이기로 약속했다. 녹색 성장과 기후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으로의 경제 모델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베트남의 강력한 정치적 결의를 보여주었다.

한편, 2021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31차 외교대회와 제20차 전국외교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조직과 내용의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베트남 외교의 계승과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제시하였다(Vietnam+ 2021). 회의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에 외교대회는 외교부 주재로 각국 대사가 참석하는 형태이지만 이번 대회는 13차 당대회 결의안 시행 첫 해에 정치국과 비서국이 직접 관여하고 공산당총비서가 직접 주재하여 열린 회의라는 점이다.

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찌민의 외교 사상, 노선, 방향, 좌우명, 외교 정책 등을 깊이 이해하는 자리였다. 응우옌푸쑹의 지시에 의해 제안된 이번 회의에서는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외교 및 국제 통합에 대한 질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둘째, 국방건설 76년과 도이며이 35년을 통한 5대 외교 교훈, 즉 1) 민족의 힘과 시대적 힘을 결합하여 국가-민족의 이익과 국제적 의무와 책임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처리하는 것, 2)

책략에 관하여 원칙과 유연성을 견지하는 것, 3) 당, 군대, 그리고 인민의 단결과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 4) 조직 구조와 인사 구축에 관한 학습, 5) 당의 통일되고 절대적인 영도와 국가의 집중 관리에 관한 학습을 깊이 관철시켰다.

셋째, 13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외교 관계에 관한 새로운 견해와 응우옌푸쑹 총비서가 전국 외교기관에 보낸 6개의 임무를 관철하는 방향에서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 국제 사회에 포괄적이고 깊이 통합 되도록 구현하고, 외부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당, 국가, 그리고 인민 외교의 3대 기둥과 함께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외교 구축에 관한 것이다. 넷째, 국가 주석과 수상은 “마음에서 마음으로의 외교(ngoại giao tâm công), 정(tinh cam), 진심, 신뢰, 평등, 존중, 효과, 호혜적 발전의 정신으로 대외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제 외교의 효율성, 디지털 외교, 기후 변화 외교, 문화 외교를 통한 국가의 소프트파워 구축, 시민 보호(해외 체류 포함)를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 완성, 감염병 예방, 경제 회복,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및 지역 환경의 전략적 변화 대응 등에 관한 연구 강화 등을 강조했다(Hoang Kieu 2021).

한편, 20년의 준비 끝에 11월부터 국적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은 호치민시(Ho Chi Minh City)에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까지 첫 정기 직항 노선의 주 2회 운항을 시작했다. 약 220만 명의 베트남인이 거주하는 미국으로의 직항 노선은 상호 방문객의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외교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둔 한국-베트남 관계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2009년에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된 이후 경제와 투자를 비롯하여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인적 및 물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고위급 인사, 중앙 부처,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과 개인 등 모든 수준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2022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관계 격상을 통한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교육 및 인적 교류 등에서의 실질적 발전이 기대된다. 2021년 9월 미국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으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베트남 응우옌쑤언푹 주석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관계 격상을 통한 실질적 발전이 지속되길 기대했고 푹 주석은 향후 30년을 위한 미래 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기로 제안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양국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켜왔다. 2015년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세 번째로 큰 교역 대상 국가이다. 2021년 양국 교역은 70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 3위 수출국이자 제 2위 수입국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 4위 교역 대상국이다. 교역 규모는 2023년까지 1,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총 9,165개의 프로젝트를 베트남에 투자하여 1위 투자국에 해당한다. 한국 기업의 약 79%가 베트남 제조업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베트남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산업, 무역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 바이오·의약품, 인프라, 금융 분야, 특히 보건 분야에서 백신, 질병 예방 및 대응 관리 등의 양국 간 협력 사업이 기대된다.

경제 교류와 함께 문화와 관광, 인적 교류는 양국의 협력을 심화시

키는 견고한 토대가 된다. 코로나 이전 2019년에 양국의 상호 방문객 수는 400만 명을 넘었고 양국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이 상대국에 체류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는 6만 5천 여 쌍의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양국 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교류에 비해 한국인의 베트남에 관한 이해는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근로자, 유학생 등 한국 내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들이 많지만 이들을 위한 포용적 정책과 이해의 수준은 미진하다. 양국 수교 30년의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베트남은 2021년부터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했다. 한국에서도 교육부 특수외국어사업을 통해 베트남어 교재 개발과 대중을 위한 베트남어 강의를 증가하고 있지만 베트남어는 취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를 통한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

V. 맺음말

2021년에 베트남 공산당의 정당성은 코로나19 대응과 블로거와 반체제 운동가들에 대한 억압의 측면에서 고려되었다면 2022년에는 바이러스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경제 성장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공산당 주요 인사들이 정권의 미래를 위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새 지도부는 경제적 측면에 더 집중하고 국민들의 소비주의적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베트남 정치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다. 공산당 지도부의 연임과 내각의 장관의 연임 혹은 차관급 인사의 승진으로 인해

향후 국정 운영 역시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본문에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제시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선거는 중국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통점이 더 많고 다국적 기업이 중국을 떠나면서 베트남은 FDI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베트남의 당대회 결과와 이후 치러진 선거 지형 그리고 중국과 정치체제가 유사하면서도 보다 민주적인 시스템이라는 차이점이 부각되는 것은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라는 점은 분명하다.

2021년 4분기 경제 회복으로 인해 2022년 경제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2021년 7월과 8월의 상황과 같이 바이러스가 주요 제조 시설과 물류 공급망에서 감지될 경우 생산에 대한 지연과 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위험성이 있지만, 인구 전체에 대한 백신 보급률의 증가로 인해 감염병의 경제적 변수와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비용 제조 허브로서의 베트남의 역할은 섬유 및 전자와 같은 기존 주요 산업 부문의 추가 확장과 자동차 및 석유화학과 같은 새로운 산업 부문의 발전에 힘입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제조 공급망 변화의 주요 수혜자는 아세안 지역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베트남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9개 국가(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가운데 운영비 규모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저렴한 노동력 제공, 풍부한 고용 기회 제공, 물류 비용, 비즈니스 환경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디지털화와 고도로 숙련된 인재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Dat Nguyen 2022).

베트남은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기”라는 구호 아래 경제 회복의 기대를 걸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0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78%는 완치되었고 22%에 해당하는 약 65만 명이 치료 중이다.⁴⁾ 베트남 정부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여 항공 및 관광산업 분야를 부흥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급한 과제는 정부 당국이 계획대로 원활한 국경 개방을 보장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지침과 프로토콜을 발표하는 것이다.

4) 베트남 보건부 코로나19 대유행에 관한 사이트. <https://covid19.gov.vn/>(검색일: 2022.02.24.).

참고문헌

- 김태언. 2021. “베트남, 15대 국회선거 당선자 발표...499석 확정.”
아주경제 6월 17일.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6131534147> (검색일: 2022.01.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한-베트남 정상회담 결과 관련 박경미
대변인 서면 브리핑.” 9월 21일. <https://www.korea.kr/news/blueHouseView.do?newsId=148893383> (검색일: 2022.01.09).
- 백용훈. 2021. “베트남 2020:재난 극복 과정에서 발휘된 대내외 리더
십과 단결력.” 동남아시아연구 31(1): 31-79.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사이트. <https://chinhphu.vn/> (검색일: 2022.01.10).
- 이한우 · 채수홍. 2019. “베트남 2018: 경제성장의 가속화와 정치적
보수화.” 동남아시아연구 29(1): 175-203.
- 정혜영. 2020.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 영향과 베트남 대외정책
방향.”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633&mid=a10200000000&systemcode=03> (검색일: 2022.01.02).
- 정혜영. 2021. “포스트 코로나 시기,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탈(脫)
중국 현상과 베트남의 공급망 역할(2) : 우리기업의 GVC 역
할 공간 확보와 경쟁력 강화 과제.”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2054&mid=a20200000000&board_id=4 (검색일: 2022.01.03).
- 조원득 · 이상숙. 2020. “미중 전략경쟁과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 헤
징에서 연성균형 전략으로.” 동북아연구 35(2): 5-35.
- 최경준. 2020. “미-중 갈등과 동남아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의
대응전략과 중간국 외교.” 아태연구 27(4): 29-66.

- 베트남 보건부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사이트. <https://covid19.gov.vn/> (검색일: 2022.01.14~18).
- Bui Thu. 2021. “Chuyến thăm của bà Kamala Harris: Việt Nam có muốn nâng cấp quan hệ với Mỹ?.” *BBC* Aug 25, <https://www.bbc.com/vietnamese/vietnam-58315173> (검색일: 2022.02.19).
- Chinh Phu Nuoc Cong Hoa Xa Hoi Chu Nghia Viet Nam. “Chính Phủ Việt Nam Đương Nhiệm.” <http://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chinhphu/chinhphuduongnhiem> (검색일: 2022.01.02).
- Dat Nguyen. 2022. “Vietnam operating costs among Asia’s lowest: report.” *VnExpress* Jan 11,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data-speaks/vietnam-operating-costs-among-asia-s-lowest-report-4414957.html> (검색일: 2022.01.13).
- Decision No. 879/QĐ-TTg.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thị trường xuất khẩu gạo của Việt Nam giai đoạn 2017 - 2020, định hướng đến năm 2030.” 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noidungchienluocphat trienkinhtexahoi?_piref135_16002_135_15999_15999.strutsAction=ViewDetailAction.do&_piref135_16002_135_15999_15999.docid=2895&_piref135_16002_135_15999_15999.substract= (검색일: 2022.01.02).
- Dien Nguyen An Luong. 2021. “Restoring Public Trust in Vietnam’s Pandemic Response: A Bumpy Road Ahead.” *Fulcrum* Nov 25, <https://fulcrum.sg/restoring-public-trust-in-vietnams-pandemic-response-a-bumpy-road-ahead/> (검색일: 2022.01.03).
- Dinh Van Minh. 2021. “Vietnam’s anti-corruption fight enters new stage.” *Vietnamnet* Aug 14, <https://vietnamnet.vn/en/feature/vietnam-s-anti-corruption-fight-enters-new-stage-765625.html>

(검색일: 2022.01.05).

- Do Truong. 2021. “Tập đoàn LEGO đầu tư 1 tỉ USD sản xuất đồ chơi trẻ em tại Bình Dương.” *Thanh Nien* Dec 9, <https://thanh-nien.vn/tap-doan-lego-dau-tu-1-ti-usd-san-xuat-do-choi-tre-em-tai-binh-duong-post1409685.html> (검색일: 2022.02.10).
- Gainsborough, M. 2018. “Malesky vs. Fforde: How Best to Analyze Vietnamese Politics”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13(2): 1-26. <https://doi.org/10.1525/vs.2018.13.2.1>
- GSO(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21a. “Họp Báo Công Bố Số Liệu Thống Kê Kinh Tế - Xã Hội Quý IV và Năm 2021.” Dec 29, <https://www.gso.gov.vn/du-lieu-va-so-lieu-thong-ke/2021/12/hop-bao-cong-bo-so-lieu-thong-ke-kinh-te-xa-hoi-quy-iv-va-nam-2021/> (검색일: 2022.01.02).
- GSO. 2021b. “Infographic Tình Hình Kinh Tế - Xã Hội Tháng 12/2021.” Dec 29, <https://www.gso.gov.vn/du-lieu-va-so-lieu-thong-ke/2021/12/infographic-tinh-hinh-kinh-te-xa-hoi-thang-12-2021/> (검색일: 2022.01.05).
- GSO. 2022. “Infographic Xuất Nhập Khẩu Hàng Hóa và Dịch Vụ Tháng 12 và Năm 2021.” Jan 8, <https://www.gso.gov.vn/du-lieu-va-so-lieu-thong-ke/2022/01/infographic-xuat-nhap-khau-hang-hoa-va-dich-vu-thang-12-va-nam-2021/> (검색일: 2022.01.10).
- Hai Yen. 2021. “Vietnam brings five major corruption cases to trial.” *Hanoitimes*, Aug 05, <https://hanoitimes.vn/vietnam-brings-five-major-corruption-cases-to-trial-318286.html> (검색일: 2021.12.15).
- Hoang Kieu. 2021. “Bế mạc Hội nghị Ngoại giao lần thứ 31 với 5

- kết quả chính.” VOV Dec 18, <https://vov.vn/chinh-tri/be-mac-hoi-nghi-ngoai-giao-lan-thu-31-voi-5-ket-qua-chinh-post-912674.vov> (검색일: 2022.01.02).
- Hoang Vu. 2021. “Ngày hội lớn của nhân dân Việt Nam.” Quân đội nhân dân May 20, <https://www.qdnd.vn/chinh-tri/tin-tuc/ngay-hoi-lon-cua-nhan-dan-viet-nam-660143> (검색일: 2021.12.20).
- Huu Cong. 2020. “Công bố Nghị quyết lập TP Thủ Đức.” VnExpress Dec 31, <https://vnexpress.net/cong-bo-nghi-quyet-lap-tp-thu-duc-4214450.html> (검색일: 2022.01.02).
-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Coronavirus Resource Center). <https://coronavirus.jhu.edu/region/vietnam> (검색일: 2022.01.14).
- Le Hong Hiep. 2021. “Vietnam’s New Government Election: The Sooner the Better?” Fulcrum Mar 24, <https://fulcrum.sg/vietnams-new-government-election-the-sooner-the-better/> (검색일: 2021.12.16).
- Le Hong Hiep and Phan Xuan Dung. 2021. “High Vaccination Rates Bring Hope to Vietnam’s 2022 Economic Outlook.” Fulcrum Dec 31, <https://fulcrum.sg/high-vaccination-rates-bring-hope-to-vietnams-2022-economic-outlook/> (검색일: 2022.01.05).
- Malesky, E. 2021. “Enhancing Research on Authoritarian Regimes through Detailed Comparisons of China and Vietnam.” *Problems of Post-Communism* 68(3): 163-170, DOI: 10.1080/10758216.2020.1865822
- Minh Ngoc. 2021. “Thu hút FDI vượt mốc 31 tỷ USD.” VGP Dec 30, <http://baochinhphu.vn/Kinh-te/Thu-hut-FDI-vuot-moc-31-ty-USD/457566.vgp> (검색일: 2022.01.03).

- Ngoc, P. 2021. “89 người dân tộc thiểu số trúng cử đại biểu Quốc hội khóa XV.” *Dan Toc va Phat Trien* Jun 11, <https://baodan.toc.vn/89-nguoi-dan-toc-thieu-so-trung-cu-dai-bieu-quoc-hoi-khoa-xv-1623344636045.htm> (검색일: 2022.01.03).
- Nguyen Hai Hong. 2021a. “Full steam ahead on Vietnam’s anti-corruption campaign.” *East Asia Forum* May 20, <https://www.eastasiaforum.org/2021/05/20/full-steam-ahead-on-vietnams-anti-corruption-campaign/> (검색일: 2022.01.02).
- Nguyen Hai Hong. 2021b. “Vietnam in 2020: The Year in Transition.” *Southeast Asian Affairs*, edited by Daljit Singh and Malcolm Cook, Singapore: ISEAS Publishing, pp. 381-404. <https://doi.org/10.1355/9789814951753-021>
- Pham Cao Cuong. 2021. “Lời cam kết sát cánh cùng Việt Nam, xây dựng 'niềm tin chiến lược' từ nước Mỹ.” *VTC* Aug 24, https://vtc.vn/loi-cam-ket-sat-canhh-cung-viet-nam-xay-dung-niem-tin-chien-luoc-tu-nuoc-my-ar632543.html?fbclid=IwAR3_TCEbEZ6DX-GM1KcyZtr0viF4V6L2SXvMhRoYs-sZi9BSfCyfGCl2pOk (검색일: 2022.02.17).
- Pham Duy Nghia. 2016. “From Marx to Market: The Debates on the Economic System in Vietnam’s Revised Constitution.”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1: 263-285. doi:10.1017/asjcl.2016.16
- Schuler, Paul. 2021. “Vietnam in 2020: Controlling COVID and Dissent.” *Asian Survey* 61(1): 90-98.
- Small, Ivan V. 2021. “Branding Vietnam: VinFast’s American Auto Debut.” *Fulcrum* Dec 22, <https://fulcrum.sg/branding-vietnam-vinfasts-american-auto-debut/> (검색일: 2022.01.05).

- Tien Long. 2021. “Quốc hội khóa XV lần đầu tiên có đại biểu dân tộc thiểu số rất ít người là Lự và Brâu.” *Tuoi Tre* Jul, 20. <https://tuoitre.vn/quoc-hoi-khoa-xv-lan-dau-tien-co-dai-bieu-dan-an-toc-thieu-so-rat-it-nguoi-la-lu-va-brau-20210720100610929.htm> (검색일: 2022.01.10).
- To Minh Son. 2021. “Cast a vote, light an incense: Tracing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the Vietnamese election.” Sep 15, <https://blogs.lse.ac.uk/seac/2021/09/15/cast-a-vote-light-an-incense-tracing-the-symbolic-construction-of-the-vietnamese-election/> (검색일: 2022.01.05).
- To Minh Son. 2021. “Vietnam’s Covid-19 Response: ‘Those above tell, those below do not heed’.” *Fulcrum* Dec 28, <https://fulcrum.sg/vietnams-covid-19-response-those-above-tell-those-below-do-not-heed/> (검색일: 2022.01.08).
- Trong Dat. 2020. “Why “Make in Vietnam” instead of “Made in Vietnam”?” *Vietnamnet* Aug 24, <https://vietnamnet.vn/en/sci-tech-environment/why-make-in-vietnam-instead-of-made-in-vietnam-668963.html> (검색일: 2022.01.02).
- VGP. 2021a. “Resolution No. 01 on major tasks and solutions guiding the realization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in 2021.” Jan 06, <http://news.chinhphu.vn/Home/Resolution-No-01-on-major-tasks-and-solutions-guiding-the-realization-of-the-socioeconomic-development-plan-in-2021/20211/42606.vgp> (검색일: 2022.01.03).
- VGP. 2021b. “Toàn văn Nghị quyết Đại hội đại biểu toàn quốc lần thứ XIII của Đảng.” Feb 26, <http://baochinhphu.vn/Tin-noi-bat/Toan-van-Nghi-quyet-Dai-hoi-dai-bieu-toan-quoc-lan-thu->

XIII-cua-Dang/424239.vgp (검색일: 2022.01.03).

VGP. 2021c. “Xuất nhập khẩu lập kỷ lục với kim ngạch gần 670 tỷ USD.” Dec 29, <http://baochinhphu.vn/Kinh-te/Xuat-nhap-khau-lap-ky-luc-voi-kim-ngach-gan-670-ty-USD/457491.vgp> (검색일: 2022.01.02).

VGP. 2021d. “Chỉ số giá tiêu dùng năm 2021 tăng 1,84%, thấp nhất kể từ năm 2016.” Dec 30, <http://baochinhphu.vn/Kinh-te/Chi-so-gia-tieu-dung-nam-2021-tang-184-thap-nhat-ke-tu-nam-2016/457564.vgp#:~:text=B%C3%ACnh%20qu%C3%A2n%20n%C4%83m%202021%2C%20Ch%E1%BB%89,23%25%3B%201%2C84%25%20> (검색일: 2022.01.02).

Viet Nam Women’s Union. 2021. “30,26% female deputies elected to 15th National Assembly.” Jun 21, <http://vwu.vn/tin-chi-tiet/-/chi-tiet/30-26-female-deputies-elected-to-15th-national-assembly-39116-603.html> (검색일: 2022.02.19).

Vietnam+. 2021. “10 sự kiện nổi bật của Việt Nam năm 2021 do TTXVN bình chọn.” Dec 26, <https://www.vietnamplus.vn/10-su-kien-noi-bat-cua-viet-nam-nam-2021-do-ttxvn-binh-cho-n/763373.vnp> (검색일: 2022.01.03).

Vietnamnet. 2021. “Vietnam looks to get 90% of adults fully vaccinated in coming days.” Dec 28, <https://vietnamnet.vn/en/society/vietnam-looks-to-get-90-of-adults-fully-vaccinated-in-coming-days-804821.html> (검색일: 2022.01.02).

VNA. 2020. “Vietnam's economy to grow 6.8 percent in 2021: World Bank.” Dec 22, <https://en.vietnamplus.vn/vietnams-economy-to-grow-68-percent-in-2021-world-bank/193558.vnp> (검색일: 2022.01.02).

- VNA. 2021. “NA deputies suggest greater attention to ethnic minority -inhabited, mountainous areas.” Nov 8, <https://en.vietnamplus.vn/na-deputies-suggest-greater-attention-to-ethnic-minority-inhabited-mountainous-areas/214081.vnp> (검색일: 2022.02.19).
- VnExpress. 2021. “9 sự kiện kinh tế - xã hội năm 2021.” Dec 27, <https://vnexpress.net/9-su-kien-kinh-te-xa-hoi-nam-2021-4406835.html> (검색일: 2022.01.03).
- VnExpress. 2021. “2021: few breaks as dark clouds smother Vietnamese economy.” Dec 23,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2021-few-breaks-as-dark-clouds-smother-vietnamese-economy-4407348.html> (검색일: 2022.01.03).
- VOV. 2021. “Four reasons behind fresh wave of COVID-19 infections in Vietnam.” May 5, <https://english.vov.vn/en/society/four-reasons-behind-fresh-wave-of-covid-19-infections-in-vietnam-855168.vov> (검색일: 2021.12.15).
- VTV. 2021. “Năm 2021, Việt Nam xuất siêu 4 tỷ USD.” Dec 30, <https://vtv.vn/kinh-te/nam-2021-viet-nam-xuat-sieu-4-ty-usd-20211230175312395.htm> (검색일: 2022.01.05).

(2022.01.18. 투고, 2022.01.26. 심사, 2022.02.17. 게재확정)

<Abstract>

Vietnam 2021: New Tenure Leadership and the Challenges from the Fourth COVID-19 Outbreak

BEAK Yong-Hun
(Dankook University)

Vietnam started the year of 2021 with optimism with the inauguration of a new tenure leadership. However, the 4th wave of COVID-19, which started in the north at the end of April, spread to the south, and the number of infections rapidly increased in the large industrial zones.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were hit hard, resulting in a sharp decline in growth in the third quarter. In addition, prolonged lockdowns have forced citizens to endure painful periods. Parliamentary 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for the next five years were held in the midst of the COVID-19 crisis. The economy has recovered in the fourth quarter. To speed up economic recovery, Vietnam has, since October, adopted a new approach on “living with COVID-19”(sống chung với Covid). The major task remains for the party leadership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system of the Communist Party through economic growth,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and to restore trust from the public.

Key Words: Vietnam, 2021, 4th Wave, 13th Communist Party Congress, Election, Anti-Negativity, Multilateral Cooperation